

##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, 「한-중앙아 경제협력 전문가 간담회」 개최

- 9월 한-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경제협력 도약을 위한 방향 논의 -
- 에너지·핵심광물 등 공급망, 인프라, 디지털·그린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-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월 11일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「한-중앙아 경제협력 전문가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2026년 한-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, 신북방협력의 핵심파트너인 한-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.

### <한-중앙아 경제협력 전문가 간담회 개요>

- **일시·장소** : '26.6.11(목) 15:00~16:30, 정부서울청사
- **참석자**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김준규 지역통상조사실장, 무역협회 한승권 구주중동아프리카실장, 국민대 이상준 유라시아학 교수, 동덕여대 오은경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장, 수출입은행 박지원 선임연구원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김시형 부장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호 선임연구위원

허 차관은 러-우 전쟁, 중동 사태 이후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자원 부국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,

이번 정상회의가 중앙아 지역과 한국이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이자,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다자 정상회의로서, 한-중앙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.

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의 높은 성장세, 에너지·광물 등 공급망 잠재력,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, 한국과 중앙아 간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양측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며, 한-중앙아 협력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특히, 기존의 교역·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, 대규모 인프라, 개발 협력에서 나아가, 원유·천연가스, 핵심광물 등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와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(AI) 및 디지털 전환,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전환, 바이오,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.

또한,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고위급 협력채널 등 제도적 기반과 유무상 원조와 수출금융을 연계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중앙아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.

허 차관은 “오늘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수립과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히며, “재경부는 한-우즈벡 부총리 회의를 비롯한 고위급 회담과 경제·금융협력 방향 마련 등을 통해 한-중앙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구교은 (044-215-7740)
		담당자	사무관	최덕희 (tinada@korea.kr)

